

광주 2월 출생아 또 감소 역대최저...인구 26개월째 순유출

557명 출생 전년 동월 대비 31명 ↓ ...전남은 2년 연속 늘어 687명 2월 1042명 광주 떠나...20대 613명 가장 많고 행선지 서울·경기

광주시의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감소해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특히 광주시는 출생아 수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 순유출도 2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광주시의 출생아 수는 올 2월 기준 557명으로 전년 동월(588명) 대비 31명(5.2%) 감소했다. 2월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다.

광주시 출생아 수는 지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광주시 2월 출생아 수는 지난 2020년 610명에서 2021년 677명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2월에는 646명의 신생아가 출생하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23년 2월에는 588명으로 600명 선마저 붕괴하는 등 올해까지 3년째 출생아 수 감소세가 두드러진 모양새다. 고령화 문제와 젊은층의 유출이 심각한 전남은 지자체 차원의 지역발전 대책 등에 힘입어 2년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687명으로 전년 동월(675명)보다 12명(1.8%) 증가했다. 전남지역 2월 출생아 수는 앞서 지난 2020년 825명→2021년 683명→2022년 663명으로 감소해왔다. 비교적 농·어업 등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전남지역에 정착하는 젊은 세대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해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탄생을 심는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면서 덩달아 지역 출생아 수 역시 증가 전환했다. 전남지역의 지난해 2월 출생아 수는 675명으로 전년 동월에 견주 소폭 증가했고, 올해 역시 687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기존 거주민들 역시 지역을 떠나며 지난 2022년 2월 부터 지난해까지 26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광주시 인구는 순유출을 기록했던 26개월 동안 매일 적게는 100명, 많게는 1500여명 까지 줄어 총 1만 9446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달 동안 광주를 떠난, 순유출 인구는 1042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출지로는 서울과 경기도 각각 563명, 24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광주시의 젊은 청년들이 지역 내 부족한 일자리 문제로 인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국을 기준으로 올해 2월 태어난 아기가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 2월 전국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하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치를 갈아치웠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작년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2월 출생아는 잠정치 발표 당시 1만9939명이었지만, 자연 신고 등이 반영되면서 2만20명으로 수정됐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남과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 광주와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1%로 올라...4년9개월만 최고

1월 비해 0.06%p 상승

은행 연체율이 지난 2월에 0.5%대로 오르면서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전월 말(0.45%) 대비 0.06%p(0.06%)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은행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0.78%)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

준"이라고 설명했다.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각각 2조9000억원, 1조3000억원)과 유사했다. 2월 중 신규 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과 동일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8%)보다 0.04%p 오른 0.42%였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0.02%p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4%로 0.10%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50%) 대비

0.09%p 오른 0.59%였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8%)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0%)이 각각 0.06%p, 0.10%p 올랐다. 금감원은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3월 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비상금 통장 'WA뱅크 스틸스' 출시

본인만이 입출금 조회 가능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직 계좌주만 통장을 조회할 수 있는 비비통장 'WA뱅크 스틸스 통장'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WA뱅크 스틸스 통장'은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서비스로도 계좌가 불가능한, 본인만이 조회 가능한 입출금 통장이다. 특히 기존 통장들은 본인 명의의 공동·금융인증서 혹은 다른 인증방법으로 로그인하거나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 금융상황을 알 수 있었던 반면, 스틸스 통장은 광주WABANK 앱에서 본인 명의의 기기 인증 후 발급되는 특정 인증서 로그인으로만 금융상황을 조회 및 사용할 수 있다. 또 출금하기 위해 영업점 방문 또는 자동화기기(ATM) 방문없이 광주WABANK 앱을 통해 가입 및 신청부터 이체거래도 가능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겸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실명 확인이 가능한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광주은행 비대면 채널(광주WABANK 앱·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스틸스 통장 출시와 함께 '잇! 나만 보이는 스틸스 통장 친구 초대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나의 추천 코드로 친구 초대 성공할 때마다 현금 2000원이 계좌로 즉시 입금되며, 초대된 친구에게도 1000원이 입금된다. 다만 해당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종준 광주은행 디지털본부 부장은 "이번 신상품을 통해 고객들의 보안서비스 이용 불편함을 개선하고, 타 금융기관과 구별되는 광주은행만의 상품 경쟁력을 제공하겠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비대면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현대차 '쏘나타 전용택시' 1호차 광주 국제교통에 전달

20% 내구성 강화된 타이어 적용 기존택시 70mm 늘어난 2열 공간

현대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송성호)는 24일 '현대자동차 쏘나타 전용택시' 1호차를 국제교통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쏘나타 택시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3일 출시한 국내 내연기관 중형세단 중 유일한 택시 전용 모델이다. 쏘나타 택시를 전달받은 법인택시 업체인 국제교통은 100% 현대차 택시를 보유 중으로, 오랜기간 현대자동차와 동행한 점을 고려해 광주 지역 '쏘나타 택시' 1호차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쏘나타 택시는 가혹한 시내 주행환경에서도 택시업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일반 차량 대비 약 2배 강화된 내구 시험 과정을 거쳤다. 내구성을 높인 스마트스트림엔진 LPG 2.0엔진과 택시 전용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일반 타이어 대비 약 20% 내구성이 강화된 타이어를 적용했다. 또 쏘나타 택시는 기존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 대비 70mm 늘어난 휠베이스를 가져 넓은 2열 공간 제공한다. 쏘나타 택시는 ▲1열 에어백 ▲운전석 무릎에



어백 ▲1열·2열 사이드 에어백 ▲전복 대응 커튼 에어백 등이 포함된 9 에어백 시스템 ▲차로 유지 보조(LF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더욱 높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 관계자는 "쏘나타 택시는 택시 전용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2열 거주공간을 확대하는 등 특화된 상품성을 갖춘 차량"이라며 "택시 전용 모델로서 차별성을 갖춘 쏘나타 택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분기 주식 결제대금 하루 2조원...34% 늘어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1분기 주식 결제대금이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분기 주식과 채권을 합친 증권결제대금이 일평균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21조7000억원이었던 전 분기에 비해선 6.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식 결제대금은 2조1000억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34.3% 증가했다. 반면 채권 결제대금은 21조1000억원으로 10.5% 감소했다. 장내 주식시장의 일평균 결제대금은 약 8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3% 늘었으며, 거래대금은 24조8000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장내 채권시장의 일평균 결제대금은 2조6000억원으로 22.5% 증가했으며, 거래대금은 7조3600억원으로 25.5% 늘었다. 장내 주식시장 결제는 유가증권을 비롯해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증권회사 간 거래된 주식·대

금의 결제를 말한다. 장내 채권시장 결제는 국채와 일반채권, 환매조건부채권(Repo) 등 장내 시장에서 매매회원 간에 거래된 채권·대금의 결제를 일컫는다. 1분기 주식 결제대금 증가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미국발 AI(인공지능) 반도체 주열풍 등으로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해 말 2655.28에서 지난 1분기 말 2,746.63으로 3.44% 올랐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가 역대 최고 수준의 순매수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비중은 3월 말 기준 29%다. /장윤영 기자 zzang@



전남농협 '사랑의 우리농산물 꾸러미' 나눔행사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2-23일 전남지역 복지단체를 방문해 '사랑의 우리농산물 꾸러미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사랑의 우리농산물 꾸러미 나눔행사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주관하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한다. 전남지역본부는 이번 행사에서 5500만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1000박스)를 전달했다. 농산물 꾸러미는 고구마, 양파, 파프리카, 애호박, 깎마늘, 양배추 등 채소류와 각종 장류로 구성됐다. 차상훈 본부장은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식재료

가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남지역본부는 복지재단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농업·농촌 부흥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75.75 (+52.73)
▲ 코스닥	862.23 (+16.79)
▲ 금리(국고채 3년)	3.509(+0.020)
↓ 환율(USD)	1369.20 (-9.10)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질관리협의체 발족

수자원공사 전남중부권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중부권지사(지사장 김선호)는 24일 광주, 목포시 등과 이상수질 공동 대응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질관리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주암댐 수질은 '매우 좋음'~'좋음' 등급을 유지

하고 있으나, 최근 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 이상 기후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주암댐도 녹조, 망간 등 이상수질 발생 주기가 단축, 심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전남중부권지사는 협의체를 구축해 원수 이상수질 발생시 수처리 정보 공유, 맞춤형 발생 시 분말활성탄 투입 등 신속한 공동 대응으로 고품

질 수돗물 공급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홍수기 대비 수도시설물 특별점검 등 시설점 검강화와 비상대응체계 구축, 수량자제 사전점검 및 응급복구 장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도시설물의 안정적 운영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선호 지사장은 "협의체 운영 및 수도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극한 기후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물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